

DSE 사용자에 대한 눈 검사

사업주는 디스플레이 스크린 장비(DSE : Display Screen Equipment)를 향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눈 검사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검사 시기와 근로자가 착용한 DSE 작업용 보안경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시점에 대해 흔히 혼동을 한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 법적 요구사항을 기술하기로 한다.

1. 서언

지난 1980년대에는 컴퓨터 스크린에서 눈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복사파가 나온다고 해서 사용자들은 컴퓨터 스크린을 보는 것을 꺼려했다.

이러한 상황이 최근 이동전화와 전화기 안테나에서 전자파가 나온다고해 같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

“안전보건 DSE 규정”이 1992년에 도입되게 된 배경도 여기에 있다.

이동전화의 경우에 있어서 법적 판정은 아직 계류 중이지만 디스플레이 장비(VDU : Visual Display Unit)는 수많은 조사와 연구결과 디스플레이 스크린이 눈을 질병이나 영구적인 손상을 일으킨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DSE 규정, 1992”는 2002년도에 개정되었으며, VDU 사용자의 눈 관리에 대해 사업주가 참여해야할 특별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2. DSE 규정의 대상

상점에서의 계산대나 공장에 있는 자동화 장비의 제어실, 컴퓨터 스크린 등 DSE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은 거의 없다.

그러나 본 규정은 관련 법에 의해 어떤 업무가 해당되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체크리스트가 있으나, 이들 규정은 점차 증가하는 자동화에 직면하면서 보완되어야 한다.

상당한 작업시간의 VDU를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작업자중 가정에서 일하는 작업자들은 그들이 회사에서 제공하는 VDU 장비의 사용 여부를 불문하고, 시력검사를 받을 권리가 있다.

마찬가지로 외부나 다른 기관에서 일하는 작업자들도 DSE 눈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그 책임은 실질적으로 고용주에 있다.

임시고용 직원에 대하여 시력검사 및 보안경 비용 문제는 근로자의 눈을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관

리한다는 원칙이 적용된다. 만일 고용 특성상 임시직원을 고용할 경우 임시직원을 고용한 기관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인력 공급 기관 소속 직원으로 간주된다면 이 경우는 인력공급 기관이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 또한, 임시직업자들이 자영업자인 경우 눈 검사 및 보안경 비용은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3 눈검사

DSE 규정은 현재 또는 신규 DSE사용자의 요청에 의해 눈 및 시력검사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명백하게 언급하고 있다. 이들 검사는 “광학기자재 제작자법”에 의해 기능과 함께 눈의 검사를 규정하고 있다.

눈 검사주기는 1년 내지 2년인데, 최초 검사 이후 정기적으로 눈 및 시력검사를 근로자가 받도록 하는 것이다.

재검사의 시기는 정해져 있다. 검안사의 전문적 지시에 따른다.

이 검사 주기는 보통 2년이지만 개별 환자의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신규채용자에 대한 검사는 VDU 사용시작 이전에 수행되어야 하지만 재검사에 관해서는 가능한 빨리 수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래서 안경점을 지정하여 다음 재검사까지 너무 오랜 기간이 되지 않게 한다.

DSE 사용자들이나 DSE 작업에 있어 발생된 것으로 간주되는 시력 장애자가 있다면 전문 검안사가 지시한 주기를 준수하지 않고 필요할 때 언제든지 눈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는 눈의 긴장감, 두통 또는 편두통 등과 같은 시력장애 요인으로 눈 검사 요구시 이를 해소해 줌으로써 작업의 새로운 조건을 찾아내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전보건성 지침에서 사용자의 시력장애는 “DSE 작업에 관계가 있다고 합리적으로 간주” 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부당한 주장은 사업주가 합법적으로 거절할 수 있다.

근로자들은 간혹 자신이 선택한 안경점에서 눈 검사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한다. 그러나 본 규정은 사업주의 재량에 의해 검안사를 지정하도록 하는 등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눈 검사는 원하는 어느 곳에서든 가능하지만 기관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검사 범위에서 기관이 지정하는 공급자를 통해 정해진 과정을 수행해야 한다.

사업주는 모든 사용자들이 특정 검안사와 상담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고, 사용자들이 상담 등의 조치과정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비용을 추후에 정산하거나, 안경교환권을 발급하는 등의 방법을 취해야 한다.

사업주들은 근로자들이 눈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근로자들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한편 근로자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눈 검사를 받지 않을 수 있다.

4 보안경

본 규정은 DSE 사용자들이 DSE 작업을 위해 보안경을 지급 받을 시기에 대해 명확히 기술하고 있다. 검사결과 근로자가 일반적인 보안경을 사용할 수 없고, 특수 안경이 필요하다면, 특수 보안경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또한 규정에서는 작업자의 눈과 스크린의 거리를 33cm와 60cm 사이로 규정하고 있으나 모두가 이 기준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조작자가 상당한 거리에 있는 영상스크린이나 공항의 체크인 데스크에서 서랍형 스크린 또는 저장실에서의 휴대용 컴퓨터를 가지고 작업하는 경우는 광학상에 있어 시험 전에 스크린을 바라보는 거리를 확립하여야 한다.

중요한 기준은 이 거리에서 스크린을 명확하게 보기 위하여 안경이 특별히 요구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작업이 사용자의 교정이 안된 시력으로는 불가능한지 또는 안경의 사용이 요구되는지에 관한 것이다.

그간 산업현장의 통계적 수치에 따르면 보통 10% 미만의 DSE 작업자들이 특수 보안경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 인력의 분포현황에 따라 이 비율은 훨씬 더 낮을 수가 있으나 평균연령 40세 이상의 작업 인력의 경우 노안으로 발생되며, 이것은 연령에 관계된 조건이다.

이 시점에서 사업주는 DSE 작업을 위한 콘택트렌즈 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없다. 실제로 많은 경우에 있어서 안경사들은 최신형의 콘택트렌즈라 할지라도 콘택트렌즈가 안구건조증을 유발시켜 장시간의 VDU 작업에 좋지 않다고 충고하고 있다. VDU 사용에 대해 처방된 보안경을 쓰도록 되어 있는 사람이 콘택트렌즈 착용자인 경우 법에 의해 보안경을 꼭 쓰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만일 그들이 안구 건조증 또는 염증으로 고통을 받게 되는 경우 적어도 특수 보안경을 착용할 선택권을 준다.

또한, DSE 규정에 대한 안전보건성 지침에서는 사업주가 복사파 방지 스크린과 소위 VDU 안경을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일 장비 구입을 할 경우 모든 비용은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5 비용지불

DSE 규정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사업주는 눈 검사 및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기본적인 보안경의 총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것은 기관이 눈 관리 정책 수립 및 전달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35파운드(약 7만원)까지의 눈 검사 청구서와 기본적인 보안경 비용인 수백파운드(수십만원)를 개인적으로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비스 공급자와 더불어 회사의 눈 관리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사업주는 공급자와 눈 검사 및 보안경에 대한 비용에 대해 사전에 합의해 놓는다.

비용은 공급자, 법인기업 및 제3자의 관리를 위한 간접비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어떤 눈 관리서비스 공급업자들은 법인 업무에 대하여 할증료를 요구하는 반면에 어떤 안경점은 그들의 서비스를 작업자에게 단독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준 대신에 좀 더 낮은 가격에 제공한다.

또한 제시된 서비스의 관리상의 결과를 검토하기 위하여 서비스의 외적인 비용 이외의 사항도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

고객설문조사에 의하면 민간 및 공공부문에 있어서 17파운드의 눈 검사와 관련된 행정 비용은 개인 거래가 청구서 또는 비용정산 방식으로 지불하는 경우 54파운드를 초과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 긴장완화

VDU 사용자에 대한 많은 연구가 나와 있지만 이들 중 가장 신뢰할 만한 것은 2005년 9월 아이

케어트러스트에 의해 출판된 저서가 있다. 비록 과학적인 증거가 부족하지만 VDU 스크린이 사용자의 눈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VDU로 작업하는 것은 집중적 노력이 요구되는 여러 가지 작업 중 하나이며, 불필요한 긴장에서 주는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간단한 단계들이다.

(1) 직원들에게 장비의 올바른 사용방법을 교육시키고 업무를 완료하는데 요구되는 문서나 그 밖의 장비에 대해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도록 한다.

(2) 좋은 자세를 취하도록 작업대의 위치들을 조정한다. 올바른 모니터 위치는 눈으로부터 33cm~60cm이며, 스크린의 이상적인 중앙부는 자연스런 눈높이보다 10cm~15cm 하부에 있도록 한다. 스크린 크기에 따라서 글자크기는 12포인트 이상이 되는 것이 좋다.

(3) 컴퓨터 스크린이 깨끗하고 얼룩이 없도록 해야 한다.

(4) 복사 문서들은 눈으로부터 스크린과 같은 거리에 놓음으로써 초점거리를 재조정할 필요가 없도록 하여 눈에 친숙한 환경을 조성한다.

(5) 거북한 목의 움직임을 피하기 위해 문서 홀더를 사용한다.

(6) 적절한 작업장 조명을 배치한다. 오히려 밝은 것보다 흐릿한 조명(주위 조명대 모니터 조명의 비가 3 : 1)이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다.

(7) 커튼이 쳐있지 않은 창문과의 위치를 고려하여 작업장의 번쩍거리거나 반사광이 최소화 되도록 배치한다.

(8) 직원들이 스크린으로부터 벗어나 휴식을 취하고 20분마다 눈을 쉬도록 해주어야 한다.

(9) 습도는 콘택트렌즈 착용자들을 위하여 특히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한다.

(10) 눈은 계속 깜박거린다. 이는 스크린에 장시간 집중함으로써 깜박이는 속도가 더디게 되고 안구 건조증의 원인이 된다.

만일 위와 같은 단순한 예방책이 지켜준다면 최근의 아이케어트러스트 조사에 대한 응답자들이 보고한 증상들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 조사에서는 다음과 같다.

(1) 여론 조사자의 1/3은 건조한 염증이 있고, 눈물어린 눈을 규칙적으로 참아왔다.

(2) 거의 2/3는 지독한 두통 때문에 주기적으로 휴식을 취해야 한다.

(3) 절반 이상이 눈의 피로나 긴장을 호소한다.

(4) 5명 중 한명의 비율로 시력이 나빠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5) 열명의 근로자 중 한명의 비율로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를 착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눈 검사를 한번도 받아 본적이 없다고 했다.

이 조사 결과에 대해 아이케어트러스트의 회장 앤더슨씨는 “작업장과 가정에서 컴퓨터 사용이 계속 증가됨에 따라 눈의 긴장을 호소하는 사람 수도 증가하고 있다. 컴퓨터 사용자들은 주기적인 눈 검사를 위하여 검안사를 방문하여 건강한 눈관리를 하여야 한다. 또한, “스크린 피로” 즉, 통증, 간지러움, 눈의 염증 또는 시야가 잠시 동안 흐려짐 등의 현상은 VDU 사용자의 90%에 이른다”고 말했다.

본 조사는 영국 VDU 사용자들이 평균 30.5시간을 스크린 앞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출처 : British Safety Council, Safety Management, 2006년 7/8월호 중에서)